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 : 율법, 믿음, 기도

IV. 성례

A. 일반적 의미의 성례 - 1

1. 성례의 본질. 제정된 목적과 또 현재 시행 목적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명확한 교리를 아는 것 매우 중요. 성례란 무엇? 성례란 우리 약한 믿음 붙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 나타내시고 확증하시는 일의 외적 표시. 또 다른 정의는, 외적 표시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은혜 증거. 이 정의는, 성례에는 반드시 선행 약속 있고, 성례는 약속 부록격. 약속 자체 확인, 인침, 약속을 우리에게 보다 명확히 해줌.

IV. 성례

A. 일반적 의미의 성례 - 2

하나님은 우리 마음 무지, 육신 연약 위해 준비하심. 하나님 진리는 그 자체 충분히 굳고 확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사방에서 받쳐주어야 함. 자비하신 주님께서서 우리 능력 맞추셔서 이 땅 요소 통해 우리를 당신께 이끄심. 성례에서 제공하는 은사들은 사물적 성질에 입혀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표시방법으로 그 은사들을 인치시기 때문.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가리켜 “인”이라 부른다. 주님께서서 그 약속들을 “언약”이라 부르시며, 그의 성례를 언약의 “표”라 부르심.

IV. 성례

A. 일반적 의미의 성례 - 3

2. 성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신실함 더욱 확실하게 믿게 만드는 행사. 우리가 육에 속하였기에, 성례도 육에 속한 것으로 제시됨. 어거스틴이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 부름은 하나님 약속들을 분명한 형상으로 우리 눈에 제시하기 때문. 성례는 “우리 믿음의 기둥”: 건물이 기초 위에 있지만, 기둥으로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하나님 말씀 기초 위에, 성례 첨가함은 마치 기둥으로 받쳐 더욱 튼튼하게 함 같다.

IV. 성례

A. 일반적 의미의 성례 - 4

성례는 거울 속 처럼 성례 통해 우리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 볼 수 있다.

주님은 그의 선한 은혜를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성례, 두 가지 다 통해 베풀어 주심. 이 사실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씀과 성례받는 사람들만이다.

어거스틴은 말씀 효력이 성례에 나타남은 말씀 듣기 때문 아니라 믿기 때문임 강조. 곧 성례는 믿음 증대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

IV. 성례

A. 일반적 의미의 성례 - 5

3.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모든 시기 통해 항상 성장, 마침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함 (엡 4:13).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며”란 말은 그리스도를 성실과 진정으로 받아들임 의미. 배고프고 목말라 그리스도 사모한다는 의미.

IV. 성례

A. 일반적 의미의 성례 - 6

4. 첫째, 주께서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 둘째, 그는 말씀을 성례로 확고히 하심. 마지막, 우리 지성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시며, 또 우리 마음 여사 말씀과 성례 들어오게 하심. 하나님은 성례로서 믿음을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심.

성례의 기능 중 하나는 하나님 약속을 우리 눈 앞에 두고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성례 자체 신뢰두거나 하나님 영광을 성례에 전이시켜서도 안 됨.

IV. 성례

A. 일반적 의미의 성례 - 7

5. “사크라멘트”라는 표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치 아래 봉사한다는 것을 증거하여, 거룩한 표징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

IV. 성례

A. 일반적 의미의 성례 - 8

6. “사크라멘트”라는 말을 사용하여 교부들은 그 성례가 거룩하고 영적인 일들의 표징이라는 뜻 나타내고자 의도. 성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 도와야 한다는 것이 일차적 일. 그 후에 성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고백 인정하는 것.

IV. 성례

A. 일반적 의미의 성례 - 9

7. 두 가지 오류. 율법의 성례: 믿음과 관계없는 의를 약속함으로써, 이 생각은 사람들 영혼을 혼동과 심판으로 몰아넣음. 어거스틴은 말한다. “옛 율법 성례는 단지 구원을 약속만 했으나 우리 성례는 구원을 준다.” “모세 율법의 성례는 그리스도를 예시했지만, 우리 성례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해준다.”

IV. 성례

A. 일반적 의미의 성례 - 10

그러므로 성례는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직책,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그 안에서 하늘 은혜의 보고를 제시하는 직책 가진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의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유익 없다.

성례의 유일한 기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선한 뜻 우리 위해 확인, 확증해 주는 것. 성례는 성령께서 동반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유익없다.

IV. 성례

A. 일반적 의미의 성례 - 11

8. “성례”: 하나님께서 그 약속 신실성을 사람이 더욱 확실히 믿도록 만드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정하여 주신 모든 표징들을 전반적으로 함축하는 말.

IV. 성례

A. 일반적 의미의 성례 - 12

9. 성례 들은 상징으로서 뿐 아니라 의식으로서 모습도 갖춤. 이런 성례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의 믿음훈련, 강화위해 뜻하신 의식이라 정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심 (창 17:10). 모세 율법은 결례 (레 11-15장).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것들 폐지되고, 세례와 성찬 두 가지 기독교회 사용 (마 28:19, 26:26-28). 구약 성례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함.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인치는 일. 그 어떤 약속도 그리스도 밖에서 주어진 것 없다 (고후 1:20).



IV. 성례

A. 일반적 의미의 성례 - 13

결과, 하나님 약속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성례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함. 유대인 성례는 그리스도를 아직 기다려야 했던 시절 약속된 그리스도 예시. 우리의 성례는 이미 주어지고 계시된 그리스도를 증거.

IV. 성례

A. 일반적 의미의 성례 - 14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된 씨 안에서 땅 위 모든 백성들 복 받으리라는 것 (창 22:18), 씨에 대한 약속 확증 위한 상기물. 그 구원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 (갈 3:16). 그 안에서만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 회복. 할례는 곧 믿음으로 얻는 의의 상징 (롬 4:11). 그 씨 기다리는 그들 믿음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여김 받는다는 사실 확실하게 보증하는 일종의 인.

IV. 성례

A. 일반적 의미의 성례 - 15

세례와 결례는 유대인들에게 그들 본성 부정, 추악, 오염 밝혀 줌. 이 의식들은 그들 추악함 씻을 다른 씻음 약속 (히 9:10, 14). 이 씻음은 그리스도. 그의 피로 씻음 받고 (요일 1:7; 계 1:5), 그 상처로 우리 치료받음 (사 53:5; 벰전 2:24). 희생제사는 그들 불의 깨닫게 함 동시에, 하나님 공의 어떤 만족 드려야 함 가르침.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인 어떤 대제사장이 죄용서 위한 하나님 공의 만족 위해 피뿌림과 희생제물 드려야 한다는 것 그들에게 가르침. 이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 (히 4:14; 5:5-9; 9:11).

IV. 성례

A. 일반적 의미의 성례 - 16

그리스도는 자기 피 뿌리셨고, 그 자신 희생제물 되셨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자신 바치심 (빌 2:8). 이 복종으로 하나님 진노 불러 일으킨 인간 불순종 말소 (롬 5:19).

IV. 성례

A. 일반적 의미의 성례 - 17

10. 오늘 우리 성례는, 아버지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 됨으로, 더 가까이 우리에게 현존. 세례는 우리가 씻어 깨끗하게 됨 증거. 성만찬은 우리가 구속 받았음 증거. 물에는 씻음이, 피에는 만족이 표시됨. 요한 말처럼 “**물과 피로 오신**” (요일 5:6)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짐. 그는 씻기시고 구속하시기 위해 오심. 하나님 영도 이 일 증인. 그러므로 “**증거 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일 5:8). 물과 피에서 우리는 씻음과 구속의 증거 가짐.

IV. 성례

B. 세례 - 1

11.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첫 목적은 그 분 앞에서 우리의 믿음 섬기기 위함. 둘째 목적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고백 섬기기 위함. 이 제도 세우신 두 이유. 세례는 우리 믿음 세가지 사항 가져다줌.

IV. 성례

B. 세례 - 2

12. 주께서 우리 이해 세우신 첫 번째 일은 이 세례가 우리 씻음의 상징, 증거라는 것. 다시 말해, 우리 모든 죄 도말 되고, 용서되고, 소멸되어 다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거나 재소환되거나, 그 때문에 우리가 정죄 받는 일 결코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기 위해 보냄 받은 전달자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세례. 믿는 모든 자 죄사함 위한 세례 받는 것 하나님의 뜻 (마 28:19; 행 2:38).

IV. 성령

B. 세례 - 3

13. 세례는 사람들 앞 우리 신앙 고백하는데 사용하는 하나의 표지에 불과하다는 생각하는 자 더 중요한 것 간과. 세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 (막 16:16) 약속과 함께 세례 받는다는데 있다.

이 의미에서 바울 쓴 것 이해.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 (엡 5:26). 다른 구절 “**우리 구원하시되...오직 그의 긍휼하심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딤후 3:5). 베드로 한 말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벘전 3:21).

IV. 성례

B. 세례 - 4

바울의 말이 뜻하는 것은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거나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성례에서 우리가 그같은 은사들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받는다는 것. 바울이 생명의 말씀과 물세례 긴밀히 연결. “복음 통해 우리 씻음과 거룩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세례 통해서 이 소식 인침 받는다.” 베드로도 이 세례가 육에서 더러운 것 제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서 온 선한 양심이라고 첨가 (벰전 3:21).

IV. 성례

B. 세례 - 5

14. 주의할 것. 세례가 과거 지은 죄만 해결하고 세례 받은 후에 지은 죄를 위해서 새 처방 구하려는 생각은 안됨. 이런 오류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 위급하거나 임종시 아니면 세례 받기 거절.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 일생동안 지은 죄 용서 받겠다고 잘못 생각 (콘스탄틴도 임종 직전 세례 받음).

IV. 성례

B. 세례 - 6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어느 시기 세례 받은 우리는 그 단 한번으로 우리 전 생애 씻고 깨끗케 하였다는 사실. 그러므로 넘어질 때마다 세례 받은 기억 회상, 마음 굳게 해 항상 사죄 확신 가져야 함. 세례에서 그리스도의 순결 주어졌고, 그의 순결 늘 풍성, 어떤 오점도 더럽혀지지 않으며, 도리어 우리 모든 더러운 것 물로 씻어줌.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고 생각해서 안됨.

IV. 성 려

B. 세례 - 7

로마서 3:25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는 말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죄를 용서 받는다는 약속은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 하는 가련한 죄인들에게 주신 것이요, 결코 방종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님. 방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

IV. 성례

B. 세례 - 8

15. 세례의 또 다른 위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새 생명 받은 것 보여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함이니라” (롬 6:3-4). 이 말씀은 세례에 의해 그리스도의 죽으심 본받아 우리의 욕망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본받아 의로운 생활하도록 분발하도록 권면 받음 가르침.

IV. 성례

B. 세례 - 9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죽음에 동참케 하셔서, 우리를 그의 죽음에 접붙이려 하심 (롬 6:5). 올바른 믿음으로 세례받는 사람들은 그들 육 죽이는 일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함을 느끼며,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사실에서 그리스도 부활 역사 느낌 (롬 6:8). 이것을 근거로 삼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아야 함을 말함 (롬 6:11; 골 2:11-12).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함이라 부름 (딤후 3:5).

IV. 성례

B. 세례 - 10

세례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었고, 사도들도 역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줌 (마 3:6; 행 2:38, 41). 여기서 “회개”가 의미하는 것은 중생, “죄사함”이 의미하는 것은 씻음. 세례요한과 사도들 한 가지 일치: 양자 모두 회개 위해 세례. 죄용서 위해 세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곧 그리스도로부터 회개와 죄사함 나옴.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라 부름 (요 1:29). 그리스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희생제물, 화해자, 구주 의미.

IV. 성 려

B. 세례 - 11

그러면 요한이 말하기를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고 한 것이 무슨 의미? (마 3:11, 눅 3:16).

요한은 그리스도와 자기 인격 비교. 자기는 물로 세례 줄뿐이나, 성령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이 권능은 성령을 사도들에게 불의 혀와 같이 보내어 주신 그 날 하나의 가시적 기적 형태로 선포됨 (행 2:3). 오늘날 세례는 어떤가? 그들은 단지 외적 표징의 수종자에 불과, 내적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IV. 성례

B. 세례 - 12

육신을 죽임과 또 씻음의 일 모두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예시됨. 사도는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받았다”고 말함 (고전 10:2). 바로의 지배와 속박에서 구출, 홍해 속으로 건너갈 길 만드신 후 (출 14:21), 그들 뒤 쫓아온 바로와 애굽 군대 빠지게 하심은 (출 14:26-28) 몸 죽이는 일 상징.

IV. 성례

B. 세례 - 13

왜냐하면, 주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 노예상태, 곧 죄의 노예상태에서 구출, 우리 바로인 마귀가 우리 괴롭히며 지치게 만들지만 이미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세례가 우리에게 약속, 상징. 애굽 군대 시체가 물가에 흩어져 흥척한 모습으로 이스라엘백성 놀라게 하듯 (출 14:30-31), 우리 원수마귀도 우리 여전히 위협하며 무기 휘두르나, 그에게 정복할 힘 없다.

IV. 성례

B. 세례 - 14

구름은 (민 9:15; 출 13:21) 씻음을 상징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름으로 덮어 시원케 하심 같이, 세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움 받고 보호 받음 깨달음. 이 가리움으로 정말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불꽃같은 위엄이 우리를 심판으로 엄습하지 못하게 함.

IV. 성례

B. 세례 - 15

- 16.** 잘못된 세례에 대한 가르침: 세례를 통해 우리가 원죄에서 벗어나고, 아담의 타락 전 본성의 순결 회복한다는 것. 이들은 원죄의 의미를 모름. 원죄란 우리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가리킴. 이로 인해 하나님 진노 받고, 다음 “육체의 일” (갈 5:19)이 우리 속에 생겨남. 성경에서 “죄”라 부르는 것.

IV. 성례

B. 세례 - 16

17. 두 가지 점 주의 고려. 첫째, 우리 본성 모든 부분 타락, 부패.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 유죄선고 받은 자. 의와 결백, 순결만 그 분께서 받으실 만함. 유아들조차 어머니 태중부터 저주 지고 나옴 (시 51:5). 유아들도 죄의 씨. 하나님 앞 가증. 세례 통해 신자들 저주가 제거, 취소됨 확약 받음. 하나님께서 이 표징으로, 우리 죄 완전히 용서되었고, 우리에게 부과된 죄책과 그 때문 받아야 할 형벌 모두 완전히 사하여졌음 약속하기 때문. 신자들은 하나님 의를 오직 전가 하심으로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고 결백하다고 그 자비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

IV. 성례

B. 세례 - 17

둘째, 왜곡된 본성, 우리 속에서, 계속 열매 (롬 7장), “육체의 일” (갈 5:19), 뜨거운 용광로가 끊임없이 불꽃 내뿜듯. 우리 본성은 선한 것 전적 결핍. 각종 악한 것 왕성하게 만듦. “정욕”에 의해 이해력, 의지력, 영혼 모두 오염. 인간은 전적으로 이 정욕으로만 이루어짐. 이런 욕망은 사망으로 몸에서 해방되기 까지 없어지지 않으며 소진되지 않음.

IV. 성례

B. 세례 - 18

세례로 우리의 바로가 익사하고 (출 14:28), 우리 죄가 죽을 것이라 약속하나, 그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고통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리라는 것. 우리 육체가 이 감옥에 갇혀 사는 동안, 죄의 흔적 항상 우리 안에 살아 있을 것.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약속 신실하게 잡고 있으면, 그 죄 자취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 없다.

IV. 성례

B. 세례 - 19

18. 누구도 자기 기만하거나 자기 죄 변명해서 안됨. 죄가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죄인이 안심, 죄악 속에 잠자라는 말 아님. 오히려, 자기 육체로 고통, 연단 받는 자들이 기진, 낙담하지 말라는 말. 자신이 아직 도상에 있음 기억, 매일 정욕이 약해짐을 느낄 때, 훌륭한 진보 있음을 믿고, 최종 목적지 도달할 때, 곧 이 세상 생명 끝나는 죽음의 순간에야 완성될 것을 알아야 함.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것.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세례를 받지만, 이 일은 우리의 세례와 함께 시작되어, 매일 매일 이 목표를 추구해 가야 하며 마침내 이 생을 떠나 주님께 갈 때에야 완성되리라는 것이다.

IV. 성례

B. 세례 - 20

19. 마지막, 세례로부터 우리 믿음이 받는 위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에 접붙여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완전 연합, 그의 모든 축복의 동참자가 된 사실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바쳐 거룩케 하여 (마 3:13) 우리와 함께 누리실 연합과 교제의 가장 견고한 끈으로 세례를 허락하사,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려고 했던 것. 그러므로 바울도 세례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 증거 (갈 3:26-27).

IV. 성례

B. 세례 - 21

20. 나아가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고백 위해 봉사. 참으로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간주되기 원하는 소원 공적 표시. 이 세례통해 우리는 같은 하나님 예배하는데 합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의 종교 가짐 증거. 세례 통해 우리 신앙 공개적 선언.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 우리 혀와 우리 모든 지체가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 높이 찬양. 우리 모든 능력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나님 영광 위해 사용되어야 함.

IV. 성례

B. 세례 - 22

다른 사람도 우리 본받아 같은 노력 하도록 격려 받게 됨. 이 점 염두 두고,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지 않았느냐고 물음 (고전 1:13). 그가 암시하고자 한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음으로, 그에게 몸바치며, 그 이름 충성 맹세, 사람들 앞 그에게 충실할 것 약속. 그 결과, 그들 세례 받을 때 한 약속 취소할 생각 없다면 앞으로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 고백할 수 없게 됨.

IV. 성례

B. 세례 - 23

21. 우리가 그 세례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받아야 할지 판단하기 쉬움. 세례란 우리 믿음 위로, 강화 위해 주신 것.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 손에서 받는 것처럼. 이 표징 통해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고 증명된 일로 여겨야 함. 죄악들 대한 기억 정결케 하고 씻어 없애고 또 닦아 내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그의 아들의 죽음에 동참자 되게 하시어 사탄의 권세와 우리 정욕을 그 아들 안에서 약화시키는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아들로 옷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 기억할 것.

IV. 성례

B. 세례 - 24

우리 몸이 외적으로 깨끗해지고 물에 잠기며 물에 둘러 싸이는 것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 속에서 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성례를 위한 규칙.

은혜들이 이 성례 속에 묶여 있거나, 성례가 하나님 은혜 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주님께서 성례라는 표시 통해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기뻐하신다는 그 뜻 확인해 주시기 때문.

IV. 성 려

B. 세례 - 25

고넬료는 죄용서와 성령 받았으나 믿음 확고하게 하고자 세례 받음 (행 10:48). 죄악들이 세례 인해 씻겨지는 것 아니라면 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례통해 죄 씻으라고 말했을까? (행 22:16). 칼빈은 답한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한 뜻은 “바울이여. 당신의 죄가 용서된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세례 받으시오. 주님은 세례로써 죄용서를 약속하시니 그것 받고 안심하시오.”

IV. 성례

B. 세례 - 26

이 성례로부터 얻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꼭 그 만큼뿐. 믿음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는 증거. 주어진 약속 믿지 않았다는 증거. 우리 고백의 상징인 한 그 성례로 하나님 자비 안에 우리 확신 있다는 것, 죄용서 속에 우리 순결이 있다는 것, 또 하나님 교회에 모든 신자들 함께 믿음, 사랑의 완전한 일치 가운데 조화롭게 살도록 증거. 바울이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고전 고전 12:13).

IV. 성례

B. 세례 - 27

22. 성례는 집행하는 자의 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손에서부터 받듯 해야 함. 성례 집행자 인간의 가치에서 더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 배달부가 상관없이 편지 보내준 자와 인만 중요하듯. 도나투스파의 오류. 교황제도 아래 받은 세례 무효라고 재세례파가 요구하는 것 칼빈 반대. (cf. 고신측 주장).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세례는 누가 시행하든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 속에는 분명히 죄용서, 육체 죽음, 영적 살리심, 그리스도에의 참여 약속 있다.

IV. 성 령

B. 세례 - 28

믿음 없이 세례 받아 아무 유익을 못 얻었던 자라고 재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멸망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의 크신 선하심에 오래 감사할 줄 모른 우리 맹목과 완고함을 자책할 뿐.

요한의 세례 받은 자에게 바울이 다시 세례를 주었다고 재세례파는 공격한다. 그러나 그 세례는 성령의 세례라고 칼빈은 지적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행 19:6).

IV. 성례

B. 세례 - 30

23. 세례의 용도에 있는 두 부분.

첫째, 하나님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

둘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믿음 고백하기 위함.

유아세례는 어린 나이때부터 하나님 은혜 그릇으로 택함받는다
는 사실 (롬 5:1) 우리 고백하는 것.

IV. 성례

C. 성만찬 - 1

24. 그리스도 교회 위해 제정된 하나의 성례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거룩하게 된 떡과 그 피 안에 거룩하게 된 포도즙. 이것을 성만찬, 성찬이라 부름. 그 안에서 주의 선하심에 의해 신령한 양식 공급 받고, 친절하심 대한 감사드리게 되기 때문.

거기 부가된 약속: 주의 몸이 영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져, 현재 우리 것이 되었고, 장래에도 영원히 우리 것 될 것임을 우리에게 확증. 그의 피가 영단번에 우리 위해 부어져 항상 우리 것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확증.

IV. 성례

C. 성만찬 - 2

성례는 신앙 보호, 불러일으키고, 증거시키기 위해 주어진 신앙훈련.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눅 22:30; 고전 11:25). 약속의 증거, 증언. 약속이 어디 있든지, 신앙은 그 자체 지탱, 안위, 강화방도 가짐.

우리 영혼이 성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달콤함, 위로 열매 실로 지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접붙여지신 것이 또한 우리가 그에게 접붙여진 것과 같아, 그 분의 것 무엇이든지, 우리 것이라 부를 수 있고, 우리 것 무엇이든지 그 분의 것으로 간주됨 알고 있기 때문.

IV. 성례

C. 성만찬 - 3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생이 우리 것이며 하늘 나라가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것과 같으며, 정반대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정죄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죄될 수 없는 것과 같은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그 분 것임을 감히 확신하는 것. 어떤 죄책이 그 분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스스로 그들을 위해 자신을 빛진 자로 정하시고 또 자신을 그 빛의 청산자로 나타내심이다.

IV. 성례

C. 성만찬 - 4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에서 그 분은 우리와 이런 상호 교환을 하셨던 것. 우리 가난을 자신이 떠맡으시고, 우리에게서 자신의 부요함을 옮겨 주셨으며, 우리 연약함을 자신이 걸머지시고,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셨으며, 우리 가멸성 (mortality)을 떠맡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자신의 불멸성 주셨으며, 자신이 이 땅에 내려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갖추게 하셨으며, 우리와 함께 사람의 아들 되셔서 우리를 그와 함께 하나님 아들로 만드셨다.

IV. 성례

C. 성만찬 - 5

25. 이 모든 사실이 성례 속에 너무나 완벽하게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 눈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손으로 그 분을 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현현하셨다고 확실히 믿는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것은 너 희를 위한 나의 몸이며 죄사함을 위해 흘린 나의 피다” (마 26:26-28; 고전 11:24).

IV. 성례

C. 성만찬 - 6

우리에게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명령하심으로, 그는 그것이 우리의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이것들이 그 분의 것이라기 보다 우리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그는 자기 자신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주셨던 것. 우리는 성례의 모든 효력이 이 말씀들 가운데 있음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IV. 성례

C. 성만찬 - 7

“너희를 위해 주는”, “너희를 위해 흘린”이라는 말씀. 만일 그 살과 피가 우리 구속과 구원 위해 영단번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그것 분배하는 것 별 유익 못 될 것.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우리 것일뿐 아니라, 우리 위한 생명이요, 양식임을 가르쳐 줌.

IV. 성례

C. 성만찬 - 8

성례의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한 비유로 옮겨가야 함. 그리스도의 몸의 표시로 제공된 떡을 볼 때, 마치 떡이 우리 육신 생명 지탱시켜 주고 양육하듯, 그리스도 몸은 우리 영적 생명 위한 양식이요 보호라는 것 우리가 봄.

피의 상징으로 제시된 포도주를 볼 때, 포도주와 동일한 유익이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깨달아야 함. 이런 유익들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IV. 성례

C. 성만찬 - 9

26. 성례는 그리스도의 몸이 참 양식이며, 그의 피는 음료임을 증거하는 그 약속을 인치고 확증하는 것 (요 6:56). 그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됨 (요 6:55). 그 약속에 의해 그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선포 (요 6:48). 그것을 먹는 자 영원히 살게 됨. 성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함. 거기서 약속이 참 실현되었고, 모든 면에서 완성 됨.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부름에 있어 그는 그 이름을, 어떤 사람이 잘못 해석하는 것처럼 성례 로부터 빌어오지 않았다.

IV. 성례

C. 성만찬 - 10

성례가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례가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가 늘 먹고 있는 떡이 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고통 당하셨던 모든 일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 이 살리심은 영원한 것이어서, 우리는 그것에 의해 평생동안 끊임없이 양육받고, 지탱되며 보존된다는 것을 성례가 우리에게 확신 시켜 준다.

IV. 성례

C. 성만찬 - 11

27.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전체를 요약해야 할 것.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 나심으로 우리 육신을 입으셨을 때, 인간의 육신 안에서 고통 당하셨다. 또 우리 위해 구속 사역 감당하셨을 때, 그러하셨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참된 육신 입으셨고, 그것을 지닌 체 승천하셨다. 우리는 부활과 승천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다.

IV. 성례

C. 성만찬 - 12

28. 성례를 통해 우리의 배가 아니라 영혼을 채워 주려 하셨으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려 하셨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획득할 충분한 길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 달리셨다고 바울이 말할 때 (고전 2:8) 그것은 그가 자신의 신성에 따라 고난 받으셨기 때문이 아니다.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육신으로 고통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요, 영광의 주이셨기 때문이다.

IV. 성 려

C. 성만찬 - 13

29.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은 진짜 육체임이 증명되었다. 여기서 그의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 있어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이 그의 기쁘신 뜻이었다 (히 4:15).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 속에서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 왕국은 장소, 공간 속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IV. 성 려

C. 성만찬 - 14

아무런 제한을 받음이 없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어느 곳에 서든지 원하시는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능력과 권능으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실 수 있으며 항상 자기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서 그들 안에 사시고 그들을 지탱시키시고, 그들을 강화시키시며, 소생시키시며, 보호하실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몸 안에 계시는 것처럼 말이다.

IV. 성례

C. 성만찬 - 15

30.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지 그 외의 방법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그가 진리와 효과적 사역 안에서 제시되는 것이지 본성 속에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말의 뜻은 분명히 그의 몸의 실체나 그리스도의 자연적 육체가 거기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모든 유익들이 그의 몸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성례의 성격이 요구하는 몸의 임재는 그러한 것이다. 한 분이 위대한 능력과 권능으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 마음에 영생에 대한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육체의 불멸성에 대한 확신까지 주신다는 것이다.

IV. 성례

C. 성만찬 - 16

31. 어떤 비타협적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라고 하셨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믿음과 관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마태와 마가는 주께서 잔을 “그의 새언약의 피”라 부르셨다고 말한다. 누가와 바울은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말한다. 비록 당신이 이것은 몸이요 피라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몸과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IV. 성례

C. 성만찬 - 17

32. 이러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에 경배하는 오류를 면케 해 줄 것이다. “집어 먹어라, 마셔라”는 말씀 (마 26:26-27)을 통해 성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지 그것에 경배하라고 하시지는 않았던 것이다. 여기서 칼빈은 중세교회와 천주교회의 성찬에 대한 이해를 비판하며 그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성례에 대한 경배를 고안해낸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자 대신에 선물을 숭배했던 것이다 (롬 1:25).

IV. 성례

C. 성만찬 - 18

33.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하신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것처럼 풍성한 은혜에 대해 배은망덕하지 말고 적절한 찬양과 함께 그것을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전파하라고 권고. 그것이 바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으로 바울이 해석했던 것 (고전 11:26).

IV. 성례

C. 성만찬 - 19

성례는 공개적으로 또한 한 목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생명과 구원에 대한 모든 보장이 주님의 죽으심에 달려 있다는 것과 우리의 고백에 의해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본보기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권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여기 성례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곧 성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성례의 두 번째 용도.

IV. 성례

C. 성만찬 - 20

34. 셋째. 주께서는 성만찬이 우리를 위한 일종의 권면이 될 것을 의도. 다른 어떤 수단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소생시켜, 우리에게 사랑과 조화를 불어넣는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그가 완전히 우리와 하나되고, 우리가 그와 하나되게 하시기 때문. 그는 단 하나의 몸 가지고 계시며, 우리 모두 그 몸 에 참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참여에 의해 한 몸됨이 필요. 성례의 떡은 많은 곡식알들이 섞이고 혼합되어 만들어진 것.

IV. 성례

C. 성만찬 - 21

한 사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합, 묶여, 우리 사이 어떤 종류의 불화, 분리 틈타지 못하게 해야함.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그런즉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전 10:16-17).

IV. 성례

C. 성만찬 - 22

형제가운데 한 사람을 해치고 비방, 조롱, 멸시함은 그리스도를 해치고 비방, 조롱, 멸시함이요, 형제와 불화함은 그리스도와 불화함이요, 형제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고, 형제들은 우리 몸의 지체임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듯 우리 형제들의 몸도 돌보아야 한다. 우리 몸 한 부분이 어떤 고통 당하면 그것이 온 몸에 퍼지듯 형제가 해 입도록 버려두지 말아야 함.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성례”를 “사랑의 끈”이라고 부름.

IV. 성례

C. 성만찬 - 23

35. 성만찬의 거룩한 떡이 신령한 양식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생명이 되도록 주신 자들에게 달콤하고 오묘하여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며 그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이 됨을 본다. 그러나 성례를 통해 감사와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치명적 독이 된다.

IV. 성례

C. 성만찬 - 24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전 11:27).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분열되는 것은 그들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신성모독적인 불경으로 더럽혔던 주의 몸과 피에 대한 죄책을 걸머짐이 마땅하다.

IV. 성례

C. 성만찬 - 25

36. 이 때문에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고 명한다 (고전 11:28). 그 말의 뜻은 각 사람이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인정하고 있는지 숙고해 보라는 것.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함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IV. 성례

C. 성만찬 - 26

모든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간주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도울 맘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목적 향해 노력, 갈망함으로 날마다 우리 믿음을 증가시키고 우리 연약한 사랑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

IV. 성례

C. 성만찬 - 27

37. 그러나, “은혜의 상태” 곧 모든 죄를 씻어 낸 깨끗한 사람들만 성찬을 먹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는 모든 사람들로 성례에서 제외시키는 결과 가짐. 스스로 힘으로 자기 가치 찾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고안해낸 것이 참회와 자백, 보속으로 무마시키려 하는 것. 이런 것은 가장 큰 오류. 왜냐하면 가련한 죄인들에게 성례가 주는 위로를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

IV. 성례

C. 성만찬 - 28

38. 그러한 혼란과 파멸로 가지 않게, 이 거룩한 향연이 병자들을 위한 것이요, 죄인들을 위한 위로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임을 기억하자.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어졌기 때문. 우리는 그 분 없이는 말라 죽을 것이기 때문.

그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 죽은 자들임을 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가치.

IV. 성례

C. 성만찬 - 29

즉 우리의 간악함과 우리의 무가치함을 그분에게 드러서 그 분이 자신의 자비로 우리를 그분에게 가치 있게 만드시는 것, 또 우리 자신에게 절망해서 우리가 그 분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 또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써 우리가 그 분에 의해 높여지는 것, 또 우리 자신을 정죄함으로써 그 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는 것, 나아가서 그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천거하신 그 연합을 갈망하는 것, 또한 그 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가지고 같은 말 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

IV. 성례

C. 성만찬 - 30

죄로 더럽혀져 거반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을 합당하게 먹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가난한 자로서 자비로운 시혜자에게, 병든 자로서 의사에게, 죄인들로서 구주에게 나아오며 우리의 가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 있지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 둘째로, 사랑 안에서 불안전하나마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가 그것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한 어떤 것으로 증가시키게 하는 것.

IV. 성례

C. 성만찬 - 31

39. 성찬을 받는데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어리석음. 왜냐 하면 그것은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 약하고 무력한 자들이 믿음과 사랑의 결핍을 깨닫고 일깨우고 자극하고 훈련하도록 제정된 성례.

IV. 성례

C. 성만찬 - 32

40. 성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주 기억하고 또 그러한 기념에 의해 자신들 신앙을 유지하며 강화하고 감사찬미를 부르면서 그의 선하심을 선포하도록 격려하고 그것에 의해 상호간에 사랑을 배양하고 그들 사이에 이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 속에서 그 유대를 분별하도록 제정된 것. 주의 만찬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리스도인들의 회집시에 행해져야 했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할 약속들이 선포되어져야 했다.

IV. 성례

C. 성만찬 - 33

41. 성찬에서 중세교회가, 그리고 지금까지 천주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를 제거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칼빈은 다섯가지 질문을 통해 밝히 드러낸다.
- 1) 열두제자에게 떡과 잔을 나누셨고, 그리스도는 그와 동일한 일을 하도록 명하셨다.
 - 2) 사도 이후 천년동안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상징에 다 참여하였다.

IV. 성례

C. 성만찬 - 34

- 3) 그리스도는 그들이 먹어야만 하는 떡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 모두가 마셔야 하는 잔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막 14:22-23; 마 26:26-27).
- 4) 만일 주께서 오직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누가 감히 일반백성들에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있는가?
- 5) 바울이 고린도교인들에게 자기가 그들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한 말은 거짓말이란 말인가? (고전 11:23)

IV. 성례

C. 성만찬 - 35

42. 칼빈은 이어서 미사 예식이 전적으로 오류임을 잘 드러낸다. 미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한 희생이요, 제물이라는 잘못된 신념 말이다. 칼빈은 미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장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하며, 대속적 죽으심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고 있음을 잘 지적한다.

IV. 성례

C. 성만찬 - 36

43. 이제 매일 희생제물을 (미사를 가르킴) 드리는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그가 유일한 중보자시며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으로 얻으신) 영원한 제사장직의 특권을 빼앗아 버린다.

IV. 성례

C. 성만찬 - 38

44. 미사는 또한 희생제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매장하여 억눌러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고자 하셨고, 그 희생의 능력과 효과가 한없이 계속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히 9:26; 10:10, 14). “자기를 단 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히 9:26).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친히 확인하셨다. “다 이루었다.” (요 19:30).

IV. 성례

C. 성만찬 - 39

수십만의 희생제사가 매일 행해지는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희생제물로 아버지께 자신을 드린 그 고난을 매장시켜 버린 것 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눈있는 사람치고 누가 거기서 것처럼 공개적이고 명백한 진리를 말살하려는 사탄의 담대함을 보지 못하겠는가?

IV. 성례

C. 성만찬 - 40

45. 미사의 세 번째 기능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되고 고유한 죽음을 제거하여 그것을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각각의 미사는 새로운 사죄와 의의 길을 약속함으로써, 미사만큼 많은 언약을 있게 하지 않았는가?

IV. 성례

C. 성만찬 - 41

46. 미사의 네 번째 기능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유익을 앗아가는 반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거나 묵상하지 못하게 한다. 미사에서 새로운 구속을 발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자신이 구속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IV. 성례

C. 성만찬 - 42

47. 성만찬이 미사 때문에 제거되고 파괴되었으며, 폐기되었다는 것이다. 성만찬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감사함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미사의 희생은 하나님께 값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배상에 의해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배은망덕함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채무자로 만들고 있다.

IV. 성례

C. 성만찬 - 43

성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우리가 한 번 생명을 회복하게 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생하게 된다고 약속한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모든 부문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미사의 희생은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기 위해 매일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V. 성례

C. 성만찬 - 44

48. 성만찬은 교회 공적 모임에서 거행됨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결속되는 영적 교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미사의 희생은 사적 미사를 만들어 내어 이 공동체를 찢어 분해시킨다.

IV. 성례

C. 성만찬 - 45

49. 사탄이 고안해 낸 것들중에 미사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포위하고 사로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미사가 모든 종류의 불경과 신성모독과 우상숭배와 참람죄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IV. 성례

C. 성만찬 - 46

50. 화목의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를 씻고 은혜와 구원을 간청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이런 종류의 희생제사는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그 단 한번의 희생제사의 효력과 능력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IV. 성례

C. 성만찬 - 47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의무를 반복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무마시키고 의를 획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 치르셨던 희생과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불경이요, 아주 사악한 모욕이라고 칼빈은 결론짓는다.

IV. 성례

C. 성만찬 - 48

51. 희생제사의 두 번째 분류는 “감사”의 제사이다. 기도와 찬미, 감사와 하나님 경배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 없다. 오히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것에만 관련. 오직 사죄받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교회의 예배를 가르키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 (롬 12:2). 우리를 아버지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계 1:6).

IV. 성례

C. 성만찬 - 49

52. 두 가지 성례는 신약의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 교회에 전수되어 왔다. 세례는 사실상 교회의 가입이 되어야 하며, 신앙생활의 시작이어야 한다. 성찬은 계속적 양식이어야 하는데, 그것으로 그리스도는 신자들을 먹이신다.

한 믿음, 한 그리스도, 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세례도 오직 하나 (엡 4:4-6). 자주 되풀이 될 것이 아니다. 반면에, 성찬은 반복적으로 거행되어, 그리스도를 계속 먹고 살게 하신다. 이 두가지 외에 어떤 성례도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다.

IV. 성례

C. 성만찬 - 50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그 분 자신의 어떤 약속에 관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향한 그 분 자신의 선한 의도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주께서 자기 나라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내실 그 큰 날이 밝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찾고 배우고 공부하며 그 분을 갈구해야 한다 (고전 15:24). 그 때에 그는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가 계신 그대로 보게 하실 것이다 (요일 3:2).

IV. 성례

D. 성례의 집행 - 1

53.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 할 때 그를 신자들의 총회에 내세워 온 교회가 함께 증인이 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를 드리는 것과 또한 그 세례지원자가 배워야하는 신앙고백을 암송하고 세례시에 주어지는 약속들을 묵상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마 28:19), 마지막으로 기도와 감사로 그를 돌려 보내는 것은 얼마나 만족스러운 일이 되겠는가?

IV. 성례

D. 성례의 집행 - 2

성만찬에 관한 한 교회 앞에서 자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거행된다면 아주 적절.

첫째, 공중기도로 시작, 그 후 설교, 떡과 포도주 식탁 위에 놓였을 때, 목사는 성찬 제정 말씀 반복. 다음 성찬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 암송. 동시 주님 금지하신 자들 모두 제외 시켜야 한다. 성찬 끝나면, 신실한 믿음과 신앙고백.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사랑과 행위에 대한 권면.